

# 건강은 건강할때 지킵시다

이 준 상



## 말띠 미신 버려야...

노 영 대

신년을 맞이하여 한해를 설계할 때 꼭 집어 넣는 것이 건강이다. 그러면 건강이란 무엇인가. 건강이라 하면, 흔히 질병 없는 상태라고 간단히 생각하고 정신적인 면은 도외시하며 육체적인 질병만을 생각해 왔으나, 현대의학은 육체는 물론 정신적인 면에서 질병상태가 아닌 상태를 또한 중요시하고 있다.

즉 사회적으로 해독을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항시 그 향상에 기여하며 자각적으로나 타각적으로나 아무런 지장이 없는 심신의 상태를 건강이라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그 현장에서 단순한 질병이나 허약의 부재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하였다.

西紀 1990년은 檄紀로 4323년이며 千支로 庚午年에 해당한다. 즉 말띠해인 것이다.

아직 미신을 다 떨쳐버리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한층 극성스러운 일이 새해 벽두에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보는 이들이 아직 많고 또 여자가 말띠일 때 거부감을 갖는 나이든 분들이 적지 않은게 우리네 사정이다.

이 같은 사정을 빤히 알고 있는 임신모가운데 더 한층 아들출산에 집착하는 이들이 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긴다.

가뜩이나 아들 선호관념이 깊어 온갖 미신, 민간요법에 첨단의학기술까지 동원해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즈음에 만약 이러한 미신을 믿는 여성들이 많다면 새

건강의 의미가 이와같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질병이 있거나 허약할 때 건강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건강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는 복지사회정책의 일환으로, 모순은 안고 있으나 역사적인 전 국민 의료보험을 출범시켰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너무 많은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으니 새해에는 균형을 맞추는 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몇가지 예를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의료 전달 세계의 문제점 등 개선·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우리 모두 다같이 참여하여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해를 맞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첨단의학기술까지 동원해 기필코 아들을 낳는 여성들이 많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해 놓은 남녀출산비가 무너진지 이미 오래됐기 때문이다.

이대로 나간다면 현재 농촌사정처럼 장가못하는 청년들이 도시에도 넘쳐 「도시노총각, 장가 못가 자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지면을 덮을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그릇된 미신을 타파할 수 밖에 없다.

말띠여성이 어느때부터 기피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조선 왕조의 왕비중 말띠여성이 적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아마 일제시대이후가

또한 병원들이 노사간의 분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병원은 직장폐쇄까지 이르게 되어 입원환자들을 진료할 수가 없어 타병원으로 전원하는 예가 사라져야 한다.

신성하고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를 외면한 채 진료를 방해하는 파업을 한다는 것은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서도 사회통념상 비도덕적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모두가 자제하고 이해와 대화로 풀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될줄 안다.

우리몸이나 사회구조 모두가 병들었을 때, 그때가서 수술하지 말고 건강할 때 미리 예방을 실시하여 극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 온 국민은 노력해야 한다.

〈필자=고려의대 교수〉

아닐까 추측해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 통용되는 속담·미신 가운데 倦色을 떤것이 많은데 「말띠여성은 팔자가 세다」는 등 말띠 여성에 불리한 미신도 바로 이 시기에 생긴 倦色性 미신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이같은 미신은 여성이 잘 나면 오히려 천덕꾸러기 노릇을 해야했던 시절이나 통용됨직한 것이요, 요즘 같이 여성의 능력과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말띠해인 庚午年에는 아무쪼록 총명하고, 의리있고, 우아하고, 민첩하고, 건강한 자질을 지닌 千金駿駒(천금준구=천금의 값이 있는 좋은 새끼말) 같은 여자아기가 많이 태어났으면 한다.

〈필자=경향신문 문화부기자〉